

시내산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고학적. 고찰
-『떨기나무』에 대한 소견

강후구 <<< 히브리대학교 박사과정 / 고고학과

이번 호 부터는 성경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와 그 성과를 소개함으로써
성경 이해와 해석에 도움을 주고자
『성서고고학』이라는 제하의 연재를 새롭게 시작한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1. 들어가는 말

2000년대 중반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책 중의 하나가 『떨기나무』이다(김승학 저, 2007, 두란노). 구약성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인 출애굽 여정과 그와 관련된 시내산을 찾고자 하는 저자의 열정이 책의 구절마다 배태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또한 2009년 가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필자에게 많이 질문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시내산과 출애굽에 대한 것이었다. 과연 『떨기나무』에서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라오즈산이 시내산이며 미디안 지역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어느 단체에서는 위 책의 영향을 받아 시내반도에 있는 기존에 시내산으로 알려진 제벨 무사(Jebel Musa)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바 있다. 이 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 책을 읽을 때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 글에서 라오즈 산이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한 역사지리적·고고학적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성서고고학이 성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몸 말

2.1. 『떨기나무』의 접근방법의 문제점

가. 성서지명과 현대 지명의 동일시(Identification of Biblical Sites)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적지들이 성서의 어느 지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 요르단 등지에서 발견된 텔을 비롯한 유적지들이 구약과 신약 시대의 지명과 같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성서, 역사자료(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 등의 고대 근동 역사자료, 유세비우스의 오노마스티콘(Wolf 1971) 등), 남아 있는 현대 지명 그리고 고고학적인 발견물들(비문과 오스트라콘 등의 문헌, 시대별의 거주지층 등)을 들 수 있다(성서 지명을 이러한 자료로부터 역추적하는 방법으로는 Aharoni 1967: 94-117을 보라). 이 네 가지를 종합하더라도, 확실하게 성서 지명을 확인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 이 아니다.

『떨기나무』의 저자가 시도하고 있는 접근 방법은 현대 지도 또는 전승에 성서와 관련된 것이 사용되고 있음을 바탕으로, 그것들이 성서에 나와 있는 장소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와디 무사(Wadi Musa)가 모세의 간헐천으로 성서 기술과 관련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본문 48-53쪽). 현대 지명이 옛날 성서 지명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성서 기술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현대 지명으로 길갈이라는 마을이 남아 있어 그곳을 성서의 길갈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지도에 나타난 지명들은 그 지도가 제작된 시대의 수준과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지, 성서의 시대를 반영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두 가지의 상반된 예가 있다. 현재 계절로 알려진 텔 엘 자즈리(Tell el-Jazari. MR 1425.1407)는 아랍어 이름에 히브리어 계절(גֶזֶל)의 자음이 남아 있어 동일시할 수 있음이 클레몽 간노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현대, 그 주장 이후 2년이 지나고, 텔 부근에서 클레몽 간노에 의하여 발견된 히브리어-헬리어로 기록된 경계 비문에 계절이란 이름이 있어 그 장소를 계절로 학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Dever, 1993). 그러나 블레셋의 다섯 도시 가운데 하나인 에크론(עֶקְרוֹן)과 그 이웃에 있는 삼손과 관련 있는 탐나(탐나, Timnah[טִמְנָה])에 대하여서는 다르다. 일찍이 올브라이트는 성서 에크론의 이름이 남아 있는 카트라를 에크론으로, 현재 성서의 에크론으로 알려진 텔 미크네를 성서의 엘트케(엘테케, Eltekeh)로 동일시하였고(1925), 벤자민 마자르는 탐나를 탐나의 자음이 남아 있는 장소인 키르벳 티브네(Khirbet Tibneh)와 동일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성서의 에크론이 현재 탐나로 주장되고 있는 텔 바타쉬로 동일시하였다(1953). 그러나 1950년대 중반 키부츠 르바딤에 거주하던 나탄 아이들린은 텔 미크네/키르벳 엘-무칸나 남쪽의 큰 평지가 텔의 일부이고 이 지역과 그 언덕은 블레셋 도시의 두 요소라고 인식하였고, 1957년 요셉 나베가 문헌, 전략적 위치, 지표조사에 드러난 고고학적 발견물 등을 기초로 하여 이 지점이 블레셋의 다섯 도시 중 하나인 에크론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발굴을 통하여 알려진 블레셋의 물질문화(Meehl, Dothan and Gitin, 2006)와 특히, 1996년에 발견된 비문을 통하여(Gitin and Dothan, 1997) 텔 미크네(키르벳 엘-무칸나)가 성서의 에크론으로 텔 바타쉬가 성서의 탐나(Mazar 1997: 1-9)라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환언 하면 현대 남아 있는 아랍어 지명이 자음이 배태하고 있는 고대 성서 지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현대 지명에 남아 있는 성서 지명의 자음 글자

또는 이름 전체의 전승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저자의 출발점은 고대 지명의 자음들이 남아 있는 현대 아랍어 지명이 아니라 성서의 이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름들이다(예, 와디 무사, 이드로의 집터 등).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고대 문헌이 없다는 점이다.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서는 현재 지명에 대한 고대 문헌의 서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책 내용 가운데 그러한 증거를 보여 주는 곳은 하나도 없다.

나. 비잔틴 시대 교회 전승 (Byzantine Tradition)

지금 시내산이라고 알려진 시내 반도의 제벨 무사(이 산도 모세산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다)가 비잔틴 시대부터 알려진 것이어서 구약성서의 시내산과는 거리가 먼 비잔틴 시대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였는데(본문 400-401쪽) 필자의 의견으로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오히려 전승이 비잔틴 시대에 교회가 세워진 곳이라면 더욱더 성서지명과 관련이 있는 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비잔틴 전승은 그 이후 생겨난 무슬림 전승보다 그 역사가 더 앞선 것이기에 더 신빙성을 가지게 된다.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그 당시에 남아 있는 전승을 바탕으로 하여 적어도 지금부터 1,500년 전의 전승을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하필이면 비잔틴 시대에 캐서린 수도원을 시내반도에 세우게 되었는가?”이다.

다. 신약성서 시대의 시내산 언급(Mentioning of New Testament concerning Mt. Sinai)

라. 출애굽 당시의 정황 (Historical Context in Exodus)

『떨기나무』의 저자는 시내반도가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제벨 무사는 시내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시내반도 전역에 이집트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의 가나안 땅 내의 정황은 어떠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시기인 후기 청동기 시대에 여전히 이집트의 통치하에 있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여 이집트 19왕조, 심지어 제20왕조 초기까지 가나안 땅에 이집트의 세력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벧산의 이집트 통치자 거주 건물은 이집트 형식을 보여 주며 건물에서 발견된 상형문자와 람세스 3세의 석좌상, 다량의 이집트 토기들은 분명한 이집트 거주를 보여 주고 있다(Building 1700과 Building 1500; Mazar, 2006: 59-169). 므깃도에서도 람세스 3세뿐만 아니라 그 이후 람세스 6세까지 이집트 세력이 주둔하고 있었음이 입상 발판이 발견됨으로 드러났다(Shiloh, 1993). 라기스와 텔 세라에서 드러난 건물과 발견물도 이를 뒷받침한다(Singer, 1994).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들어온 땅이 이집트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집트가 패권을 차지하였을 때는 중요지역에 행정관을 두고 그 지역의 경제적인 이권을 차지하려는 목적이 더욱 컸다. 그러하기에 이집트는 많은 군사를 배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주전 14세기의 아마르나 문서에 의하면 가나안 땅의 통치자가 그들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수의 이집트 군사를 파병할 것을 바로에게 요청하고 있다(EA 55, EA 151 등, Moran 1992). 므깃도 같은 곳은 방어하기 위하여 100명의 군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EA 244), 다른 곳은

방어하기 위하여 바로에게 고작해야 20명의 군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EA 151, Moran 1992: 238-239). 이와 같은 사실은 가나안 내에서의 이집트 지배 세력이 강력하게 미치지 못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 여전히 이집트가 패권을 차지하고 있을 시기인 주전 13세기에 람세스 2세의 아들이었던 메렌프타가 가나안 땅을 비롯한 그 주변 지역을 원정하였다는 것은(Pritchard, 1950: 376-378) 거꾸로 이집트의 지배 세력이 전 지역에 걸쳐서 행사되고 있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집트 지배 세력이 원정지역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면 왜 그가 원정을 하였겠는가? 따라서, 출애굽 당시, 시내반도가 이집트의 지배 세력이 머물렀던 지역이었으므로 시내반도에 시내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 나바티아인들 (Nabateans)

책에서 나바티아인들에 대하여 언급하며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아들 중 장남 느바웃과 연결시키고 있다(예: 본문 254쪽). 이것은 저자가 현재 남아 있는 유적과 역사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보여 주는 것 중의 하나로서, 나바티아인들은 주전 2세기에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나, 주후 106년 시리아의 통치자였던 코르넬리우스 팔마가 나바티안 왕국을 로마로 합병시키면서 이들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마카비 전쟁 때, 유다와 요나단을 도와준 일로 마카베오 상 5장 24-28절과 9장 35절에서 언급되었고, 신약성서 고린도 후서 11장 32-33절에서 아레다 왕이 언급되고 있다. 비록 이들의 기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나바티아인'이란 이름이 저자가 주장하였던 것처럼 느바웃과 연관시키려는 시도가 있으나 언어학적인 이유로 학자들에 의하여 거절되었다(Graf, 1992).

환언하면, 주전 2세기에서 주후 2세기까지 활동하였던, 나바티안의 전승과 그보다 몇백 년 앞선 구약성서의 내용과 연관 지어 역사를 서술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2.2. 떨기나무 내용에 대한 고고학적인 견해

책 떨기나무 내용 가운데 고고학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 몇 가지를 골라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홍해 도하 기념 솔로몬 기둥

저자는 솔로몬 시대 때, 세워진 것으로 여겨지는 원형으로 된 기둥이 누웨이바와 하끝에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누웨이바에는 원형 기둥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하끝에서는 자리만 남아 있고 물에 잠겨 있다고 사우디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전하고 있다(본문 99-119쪽, 232-237쪽, 234쪽의 사진). 지금까지의 발굴 가운데, 솔로몬 시대 때의 기둥이라고 알려진 것은 없다. 또한 그 당시의 궁전이나 행정 건물을 볼 때에 기둥을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이 발견된다(Reich 1992, Herzog 1992). 다만, 학자들 간의 논란이 있으나, 주전 10세기 이후부터 사용된, 기둥으로 떠 받쳐지는 기둥머리가 발견되었는데, 곧 원시 이올리안 주두(柱頭, Proto-Aeolic capital)이다(Shiloh, 1979, Mazar, 1990: 426-427). 기둥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이 주두들이 네모난 모양을 하고 있어 만약 그 기둥이 있었다면 그 모양이 네모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Reich, 1992: 213, Fig. 10; Mazar, 1990: 475, Fig. 11.8을 보라). 원기둥이 주로 사용된 시대는 로마 시대 이후의 것으로 책 234에서 보여 주고 있는 기둥의 모습을 보아서도 로마 시대 또는 비잔틴 시대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그 기둥의 위쪽 부분은 그

위에 무언가를 떠받칠 모습을 지니고 있지, 기념비로 여겨질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다.

나. 메노라 모티브(Menorah motif in rock incisions)

저자는 본문 여러 부분에서 미디안 지역에서 발견된 암각화를 보여 주고 있다(137, 144, 314, 324, 336, 362, 388, 394쪽). 이들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림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글자이다. 미디안 지역에서 발견된 암각화 그림 가운데, 메노라 모티브가 나오는데, 이것을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시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고고학적, 역사문헌적인 자료를 통틀어 메노라 모티브는 구약성서 시대에 발견된 적은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주전 2세기 때의 하스모니안 마지막 왕인 마타디아스 안티고누스의 동전에 나온 것으로 그것도 대략적으로 윤곽만 그려진 것이다(Moshorer, 1982: 87-97). 예루살렘의 야손의 무덤 벽에 묘사된 다섯 개의 대략적으로 새겨진 메노라들도 하스모니안 시대 또는 헤롯 시대로 편년되었다(Rahmani, 1967: 73-74). 주후 1세기의 것으로 확실하게 편년된 것을 두 가지 들 수 있는 하나는 로마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다.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의 개선문에 메노라가 분명 장식되었고, 예루살렘 유대인 지역에서는 발굴을 통하여 1969년 아비가드에 의하여 발견된 두 개의 석회 조각에 새겨진 메노라가 있다(Habas, 2003). 후자의 것은 비록 부분이지만, 분명히 일곱 가지를 가진 메노라가 삼각형 모양의 받침 위에 서 있는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가지에는 꽃봉오리 모양을 가진 장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Habas, 2003: 329-332). 따라서 바위에 새겨진 메노라 장식은 후대의 것으로 출애굽 당시의 것과는 거리가 멀다.

다. 토기(Pottery Sherds)

떨기나무 저자는 본문 중에서 미디안 광야의 유물 가운데 유일하게 토기 사진 한 장을 보여 주고 있다(본문 170쪽). 이 토기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눈금자가 없기에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저장용 항아리(storage jar)이던지 아니면 외손잡이 단지(jug)이던지 둘 중의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기의 일부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다. 사진에서 보여 주고 있는 것은 토기의 목 부분과 몸체 부분이 연결된 토기 조각으로 목 아래쪽에는 수평으로 몇 줄의 새겨진 선들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다섯줄의 물결무늬가 새겨져 있다. 이와 비슷한 장식이 초기 철기시대(주전 1200-1000년)에 두로의 영향을 받아 팔레스틴의 도르 등지에서 발견된, 토기벽 두께 자체가 두껍고 매우 큰 항아리(pithos)의 물결무늬에서 확인되지만, 그 형태는 사진에서 보여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떨기나무』에서 보여 주는 것은 중기 청동기 시대 또는 무슬림 시대의 특징적인 장식으로 출애굽 시대의 것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 미디안 지역의 토기에 대한 연구가 현재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곳의 고고학적 발굴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결과인데, 지금까지 연구된 것을 바탕으로 본다면, 출애굽 당시 미디안에서는 오히려 채색된 토기가 사용되었다(Amiran, 1969, 이 토기는 텔 아비브 도시의 에레츠-이스라엘 박물관에 일부 전시되어 있다).

3. 나오면서

계몽주의 시대 이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접하게 된다. 대중 매체들은 기독교의 근간을 흔

들어 놓은 것들을 골라 사람들의 시청률과 주목을 잡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과학과 여러 가지 이론들의 힘을 빌어 비신앙인들은 “하나님 없음”과 “성경의 역사성 없음”(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의 역사성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급부적으로 교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담보하고 있는 성경은 사람들의 어떠한 행위(물리적, 심리적, 영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원성을 유지할 것이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인문, 자연, 사회)의 영역 안에 갇힐 수 없다. 변증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할 현대인들을 “신앙 없음의 세계”(World without Belief)로 인도하는 데 위에서 언급한 일들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 있다. 만일,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교회가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타당하지 않는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신앙을 내세운다면 그 신앙의 핵심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불어 역사적이지 않게 된다. 동일하게 교회의 테두리 안에 있는 신앙인들에게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계몽주의 시대가 아닌 계몽주의 시대 이전 어느 시점이라도 만일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전혀 역사성이 없는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드는 것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탕과 근거가 없는 신념(Belief without Base)이 아니다. 그 바탕 가운데 하나가 역사성을 기초로 하는 신념인데, 그 역사성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바로 고고학이다.

이 글은 『떨기나무』에서 보여 주는 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성과 여정 곳곳에 묻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에 대하여 폄하하거나, 무시하고자 함은 아니다. 다만, 이 책에서 시내산의 위치와 출애굽

여정을 재건하고자 할 때, 생각해야 할 부분들과 아울러 역사지리적, 고고학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래의 질문 “성서의 사건이 있었던 시내산은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하여는 다음 호에서 고고학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것과 대답할 수 없는 그 한계성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답하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 Aharoni, Y. 1967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London: Burns & Oates.
- Albright, W.F. 1925 “Topographical Researches in Judaea”. *Bulletin of American Society of Oriental Research* 18:6-11. Amiran, R. 19 Dever, W.G. 1993 “Gezer” in *New Encyclopedia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Holy Land*. Vol.2. Jerusalem: The Israel Exploration Society. pp.496-506.
- Gitin, S. and Dothan, T. 1997 “A Royal Dedicatory Inscription from Ekron”. *Israel Exploration Journal* 47:1-16.
- Graf, D.F. 1992 “Nabateans” in *Anchor Bible Dictionary*. vol.4. Doubleday. pp.970-973.
- Habas, L.-H. 2003 “Ch.12. An Incised Depiction of the Temple: Menorah and Other Cult Objects of the Second Temple Period” in Geva, H. ed. *Jewish Quarter Excavations in the Old City of Jerusalem: conducted by Nahman Avigad, 1969-1982*.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pp.329-342.
- Herzog, Z. 1992 “Administrative Structures in the Iron Age” in Kempinski, A. and Reich, R. eds. *The Architecture of Ancient Israel: From the Prehistoric to the Persian Periods*.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pp.223-230.
- Mazar, A. 1990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10,000-586 B.C.E*. Doubleday. 1997.
- Timnah(TelBatash)I: Stratigraphy and Architecture. Qedem37.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2006.

- Excavations at Tel Beth-Shean 1989-1996. Vol.1. From the Late Bronze Age II B to the Medieval Period.* Israel Exploration Society &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 Mazar, B. 1953 "The Campaign of Sennacherib in Judea". *Eretz-Israel* 12: 170-175.
- Meehl, M.W., Dothan, T. and Gitin, S. 2006 *Tel Mique-Ekron Excavations 1995-1996: Field INE East Slope Iron Age I* (Early Philistine Period). Jerusalem.
- Moran, 1992 *The Amarna Letter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oshorer, Y. 1982 *Ancient Jewish Coinage*. Vol.I. Persian Period through Hasmonaeans. NewYork.
- Pritchard, J.B. 1950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hmani, L.Y. 1967 "Jason's Tomb". *IsraelExplorationJournal*17:61-113.
- Reich, R. 1992 "Palaces and Residencies in the Iron Age" in Kempinski, A. and Reich, R. eds. *The Architecture of Ancient Israel: From the Prehistoric to the Persian Periods*.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pp.202-222.
- Shiloh, Y. 1993 "Megiddo" in *The New Encyclopedia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Holy Land*. Jerusalem: The Israel Exploration Society. pp.1012-1024.
- Singer, I. 1994 "Egyptians, Canaanites and Philistines in the Period of the Emergence of Israel" in Finkelstein, I. and Na`aman, N. eds. *From Nomadism to Monarchy: Archaeological & Historical Aspects of Early Israel*. Jerusalem: YadIzhakBen-Zvi. pp.282-338.
- Wolf, C.U. 1971 *The Onomasticon of Eusebius Pamphili: Compared with the Version of Jerome and Annotated*.

:: 강후구 장로회신학대학교(B.A., M.Div.)를 나와 미국 University of Dubuque Theological Seminary (M.A.R.)에서 공부했다. 현재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고고학과 박사과정(Shlav Bet) 성서시대 고고학 전공 중에 있으며 엘리골짜기의 Khirbet Qeiyafa를 발굴하고 있다.